

#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The Double Care Burde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Middle-aged and Older Heads

김유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가족 부양 환경의 약화로 부양 공백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령인구 확대와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성인기 자녀의 독립 지체로 중·장년층 가구주의 이중부양 부담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중부양의 장기화는 중·장년층의 노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족 갈등으로 인한 만성적 가족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한 가족 유지를 위해 공사 간에 균형 있는 부양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이중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원 유지·담보를 위해 고용 안정,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기반 마련과 함께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내실화가 요구된다. 중·장년층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적인 부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중부양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이중부양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중부양자의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1.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로 인한 가족 해체,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가족 돌봄을 담당할 주체가 급속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1~2인 가구는 2000년 34.6%에서 2010년 48.2%, 2015년 5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핵가족 비율은 2000년 68.3%에서 2010년 61.6%, 2015년 58.6%로 소폭의 감소를 보이며 절반을 상회하였다(통계청, 2000a; 통계청, 2010a; 통계청, 2015a). 조이혼율은 2000년

2.5건에서 2010년 2.3건, 2015년 2.1건으로 감소 추세가 2018년까지 유지되나 지속적으로 일정한 건수가 발생하였고(통계청, 2000b; 통계청, 2012; 통계청, 2015b; 통계청, 2018a), 맞벌이 가족은 2000년 35.4%에서 2009년 40.1%, 2014년 4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0c; 통계청, 2009; 통계청, 2014). 한편, 고령인구의 확대와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성인기 자녀의 독립 지체는 돌봄 수요의 증가를 야기한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3%에서 2010년 11.3%, 2015년 13.2%, 2018년 14.3%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고령사회로 접근하며(통계청, 2000a; 통계청, 2010a; 통계청, 2015a; 통계청, 2018b), 초혼 연령은 2000년 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서 2010년 각각 31.8세와 28.9세, 2018년 33.2세와 30.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0b; 통계청, 2010b; 통계청, 2018a). 이에 따라 가족의 돌봄 기능 과부하로 인한 가족 부양 기능 공백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2015년 50.3세로 중·장년층 가구주의 분포가 확대되고 있다.<sup>1)</sup> 중·장년층은 본인의 노후 준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이들이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실증적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성인 자녀 부양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0%, 부양 때문에 가계가 부담스럽다는 비율은 32%였고, 노부모 부양인 경우는 각각 9.7%와 25%의 분포를 보였다(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연령별 고용률에서 잘 나타난다. 2018년 기준 고용률을 보면 30대(75.7%)부터 40대(79.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50대(75.0%)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60세 이상(38.3%)은 40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통계청, 2018c).

이와 같이 중·장년층 가구주의 이중부양 부담은 가족 갈등을 초래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되어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지만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중·장년층 가구주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이중부양 부담 구조는 빈곤과 해체를 불러오고,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야기한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상이한 성인 자녀 세대와 노부모 세대의 장기간에 걸친 동거는 가족 갈등으로 인한 만성적 가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한 가족 유지를 위해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간 균형 있는 부양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 및 기존 조사 자료<sup>2)</sup>를 활용하여 이중부양에 영향을 주는 가족사회 변화

1) 우리나라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2000년 44.5세에서 2010년 48.3세, 2015년 50.8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고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통계청, 2000a; 통계청, 2010a; 통계청, 2015a).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에 실시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화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전 국민 중 만 45~64세 이하의 남녀이다.

원인 및 현상을 살펴보는 한편, 이중부양의 특성과 정책 욕구 등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코자 한다.

## 2. 중·장년층과 이중 부양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

중·장년층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중·장년층의 개념은 중년과 장년의 복합어로, 이에 대해서는 학자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중년 또는 중고령 등과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우선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중·장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사전으로 위키백과에서는 중장년을 중년(中年)과 동일한 의미로 설명하며, 중년 또는 중·장년은 인간의 인생에서 장년에서 노년 사이의 단계를 이르는 용어로 정의한다. 이와 달리 국외에서는 중년과 장년을 중년으로 통합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콜린스 사전(Collins 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중년(middle age)은 일반적으로 40~60세 사이의 연령기로 간주한다. 중·장년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국외 연구에서는 Erikson(1974)이 중년기(7단계)를 40~65세로 규정하고, 중년기를 인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전환되는 결정적 시기로 인식하였다. 국내 연구들은 중·장년 개념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노년기와 구분지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신체적으로나 지

적으로 활동적인 시기, 즉 노년기의 직전 시기로 규정하고(진주영, 하구수, 2016) 중·장년층을 40~59세(김영란, 2017)나 45~59세 사이의 인구(금재호, 2011)로 한정하고 있다. 중·장년에 대한 연령 규정과 특성에 대한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중·장년층이란 개념은 중년과 장년을 포괄하면서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에 위치한 연령기를 의미한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족의 부양과 자녀의 독립을 지원해야 하는 특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연령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장년층이 인구적으로는 중년층 이후부터 노년기 이전으로 특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적 측면에서 만 45~65세 범위로 규정하고자 한다.

한편, 부양은 봉양, 수발, 돌봄 등 다양한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송다영, 2004).<sup>3)</sup> 부양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정창수(2009)는 부양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동거 또는 비동거 형태로 정서적 지원, 필요한 자원 제공, 인간관계 형성, 일상생활 또는 이동 시 도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의 제공 등을 포함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부양은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정의되기도 한다. Caplan(1976)은 부양에 대해 정서적 지원과 필요한 자원을 개인에게 제공하고 개인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3) 일반적으로 부양은 경제적인 원조를, 봉양이나 수발, 돌봄은 신체적 및 정서적인 원조에 주목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양영자, 2009에서 재인용).

(서소용, 김명자, 1998에서 재인용). Horowitz & Shindelman(1982)도 부양을 부양제공자와 피부양자 사이의 전 생애를 통한 연속적인 상호 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서소용, 김명자, 1998에서 재인용). 이는 부양을 양자 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관계로 보는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Warren은 물리적 원조, 정서적 지지, 신체적 고통을 보살펴 주는 일, 외로울 때 위로와 시중을 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부양으로 정의하였다(이남순, 2006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살펴본 부양 개념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이중부양이란 '두 세대 이상의 피부양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경우로 특히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 자녀<sup>4)</sup>와 노부모에게 동거 또는 비동거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정서적, 신체적 및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코자 한다. 부양 유형 중 경제적 부양은 금전 및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 부양은 피부양자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적 부양은 신체적 독립에 필요한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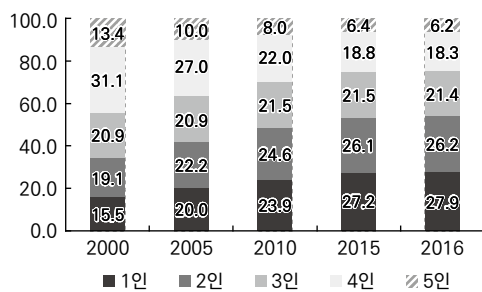
### 3. 이중부양 환경 진단

#### 가. 가족 변화

최근 우리 사회 가족 구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소가족화와 핵가족화이다. 이는 가구원 수 규모별로 잘 나타난다. 2000년 3~4인 가구가 52.0%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였고, 뒤이

그림 1. 가구원 규모별 변화 추이(200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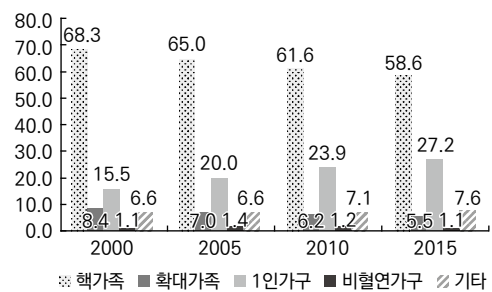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 통계청. (2000a).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통계청. (2005a, 2010a, 2015a).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7). 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

그림 2. 가구 유형 변화 추이(2000~2015년)

(단위: %)



자료: 1) 통계청. (2000a).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통계청. (2005a, 2010a, 2015a).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7). 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

4) 이중부양 대상에서 미성년 자녀와 기혼 성인 자녀는 배제하였다. 미성년 자녀 부양은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부양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기혼 성인 자녀의 경우 결혼을 통해 개인이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고 자립적인 부양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어 1~2인 가구가 34.6%로 3분의 1의 분포를 보였다. 2005년 이후 4~5인 가구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1~2인 가구는 증가하고, 3인 가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2016년 1~2인 가구가 54.1%로 과반수를 나타낸 데 비해, 3~4인 가구는 39.7%로 5분의 2의 분포를 보였다. 다른 하나는 가족 해체로 인한 가족 유형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2000년 핵가족 형태가 68.3%로 3분의 2를 상회하는 데 비해, 1인 가구는 15.5%로 5분의 1에 못 미쳤고, 확대가족 형태는 8.4%로 핵가족의 8분의 1이었다. 15년간 지속적인 소가족화로 가구 유형이 변화를 보여 2015년에 핵가족 형태는 58.6%로 2000년에 비해 9.7%포인트 감소하였고, 확대가족 형태는 5.5%로 같은 기간 2.9%포인트 감소하였다. 1인 가구는 27.2%로 약 2배 증가하였다. 가족 구조의 변화에서 두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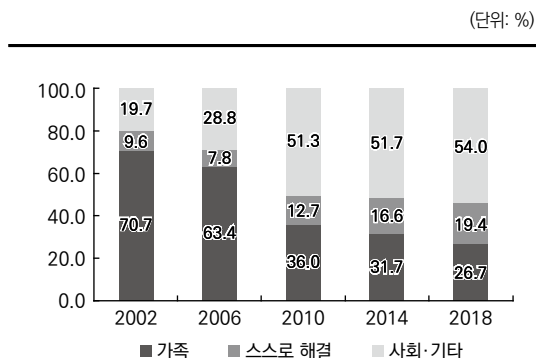
러지게 나타나는 소가족화는 개인주의화에 따른 가족원 분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증가, 만혼화 현상, 그리고 이혼율 증대 및 저출산으로 인한 1~2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된다.

### 나. 부양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양관은 효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 부양에 집중되었으나 가족주의 약화와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법 및 제도 변화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족 부양은 감소하고 국가와 사회에 의한 공적 부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 부양관에 잘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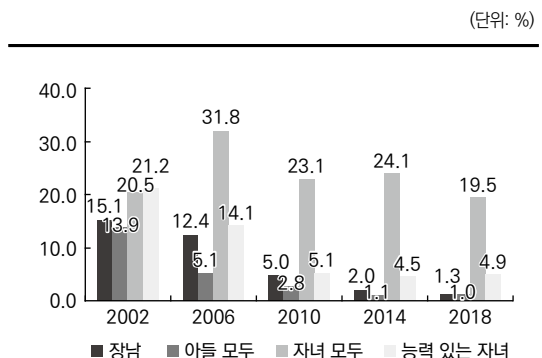
부모 부양관의 변화를 보면, 부모 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에 대해 2002년에는 가족이 70.7%

그림 3. 부모 부양 책임자 변화 추이 (2002~2018년)



주: 1) 부모 부양 책임자 사회조사 결과는 1998년부터 4년 주기조사로 수행됨.  
 2) 1998~2010년 분석 대상은 15세 이상 인구이며, 2014~2018년 분석 대상은 13세 이상 인구임.  
 3) 부모 부양 가치관에서 기타에는 스승, 선후배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2002~2018). 사회조사 결과.

그림 4. 가족 중 부모 부양 책임자 변화 추이 (2002~2018년)



주: 1) 부모 부양 책임자 사회조사 결과는 1998년부터 4년 주기조사로 수행됨.  
 2) 1998~2010년 분석 대상은 15세 이상 인구이며, 2014~2018년 분석 대상은 13세 이상 인구임.  
 3) 부모 부양 가치관에서 기타에는 스승, 선후배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2002~2018). 사회조사 결과.

표 1. 자녀 양육 책임의 범위 변화 추이(2003~2018년)

(단위: %)

구분	자녀 고등 졸업 때까지	자녀 대학 졸업 때까지	자녀 취업 때까지	자녀 혼인 때까지	필요하면 언제까지	기타	생각해 보지 않음/모르겠음	계(명)
2003년	8.3	40.2	11.5	32.1	6.3	0.6	1.0	100.0(11,106)
2006년	8.6	46.3	11.9	27.0	5.5	0.1	0.5	100.0(10,117)
2009년	9.6	49.6	12.2	23.1	5.0	0.1	0.4	100.0(9,075)
2012년	8.9	49.6	15.7	20.4	4.6	0.0	0.8	100.0(10,058)
2015년	10.4	62.4	17.2	8.8	1.2	0.0	0.0	100.0(10,994)
2018년	14.7	59.2	17.4	7.1	1.6	0.0	0.0	100.0(11,205)

자료: 1)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건우. (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34.  
 2)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건우.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48.  
 3)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69.  
 4)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중서, 손창균, 최영준...윤아름.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36.  
 5) 이삼식, 박중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61.  
 6) 이소영, 김은정, 박중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31.

로 3분의 2를 상회하였고 사회 및 기타는 19.7%로 5분의 1에 근접하였으며 스스로 해결은 9.6%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가족 중에서는 장남과 아들 모두가 29.0%로 3분의 1에 못 미쳤고, 딸을 포함한 모든 자녀와 능력 있는 자녀는 각각 20.5%와 21.2%로 5분의 2에 해당되었다. 2010년에는 부모 부양의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이 36.0%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스스로 해결과 사회 및 기타는 각각 12.7%와 51.3%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노부모 부양을 사회화하려는 태도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18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에서는 모든 자녀가 19.5%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미미하여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이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전통적인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에서 점차 노부모의 자기부양을 비롯하여 국가 및 사회 등 공적 부양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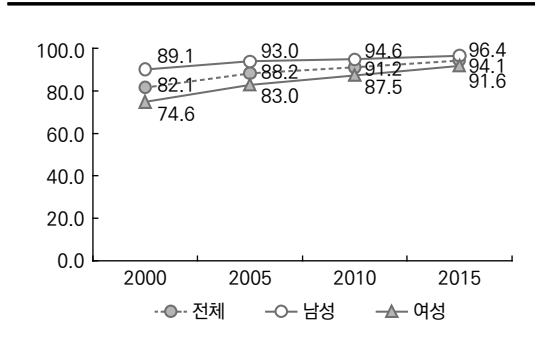
최근 산업화 및 소가족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자녀 부양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양육 책임의 범위를 보면, 2003년에는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가 32.1%였으며,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도 일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2년까지 지속되다 2015년 이후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의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그리고 취업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만혼화 및 결혼 기피 현상 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 청년층 인구의 만혼화·비혼화 심화

우리나라 청년층의 미혼 인구 비율을 보면 다

그림 5. 성별 청년층의 미혼율 변화 추이  
(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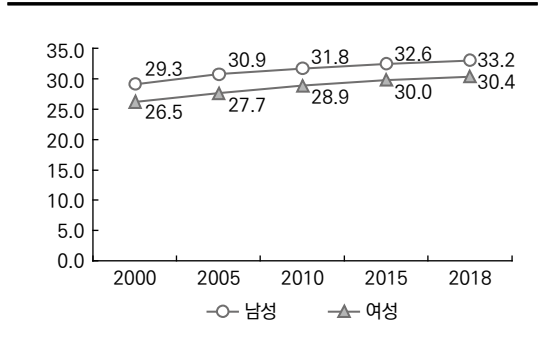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 통계청. (2000a). 인구 및 주택센서스.  
2) 통계청. (2010a, 2015a).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00b-2018a). 인구동향조사.

그림 6. 평균 초혼 연령 변화 추이  
(2000~2018년)

(단위: 세)



자료: 1) 통계청. (2000a). 인구 및 주택센서스.  
2) 통계청. (2010a, 2015a).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00b-2018a). 인구동향조사.

음과 같다. 2000년 82.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94.1%에 이른다. 성별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은 같은 기간 89.1%와 96.4%, 여성은 74.6%와 91.6%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간 미혼율의 차이는 2000년 14.5%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5년에는 4.8%포인트였다. 이는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남성의 미혼율이 여성보다 높음을 보여 주는 한편, 남성에 비해 여성의 미혼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미혼율이 증가하는 것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의 남성 초혼 연령은 29.3세, 여성은 26.5세였던 것이 2018년에는 남성 33.2세, 여성 30.4세로,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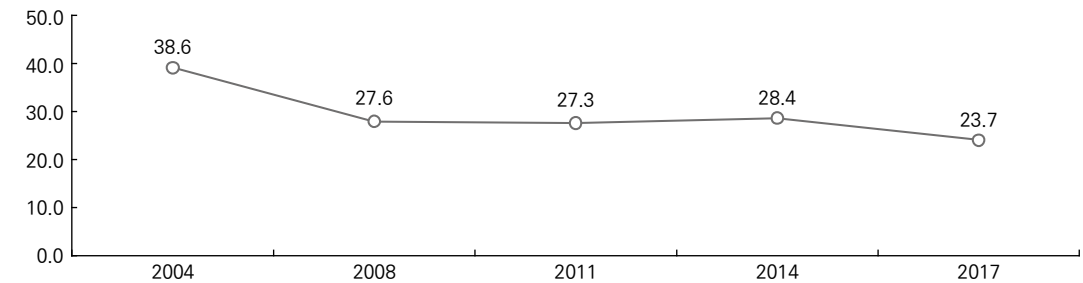
남성과 여성 모두 3.9세가 높아졌다.

청년층의 만혼화에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여성의 경우 교육 수준 향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0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8%에서 2015년에는 51.9%, 2018년에는 52.9%로 상승하였다<sup>5)</sup>(통계청, 2000d; 통계청, 2015c). 또한 청년층의 경제적인 능력 약화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청년 실업률은 2000년 8.1%, 2005년 8.0%, 2010년 7.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5년에 9.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전체 실업률이 3.7%에 불과한 것에 비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3배 가까이 높은 것을 볼 때(통계청, 2000d; 통계청, 2005c;

5) 2005년과 2010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50.3%와 49.6%의 분포를 보였다(통계청, 2005c; 통계청, 2010c).

그림 7.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동거 비율 변화 추이(2004~2017년)

(단위: %)



자료: 1) 정경희, 조애자, 오영희, 변용찬, 변재관, 문현상.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4.  
 2)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2.  
 3)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김한곤, 이신영, 조준행 외.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p. 138.  
 4)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9.  
 5)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1.  
 6)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오미애, 강은나, 김경래...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8.

통계청, 2010c; 통계청, 2015c; 통계청, 2017b),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이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라. 노부모-성인 자녀 간 결속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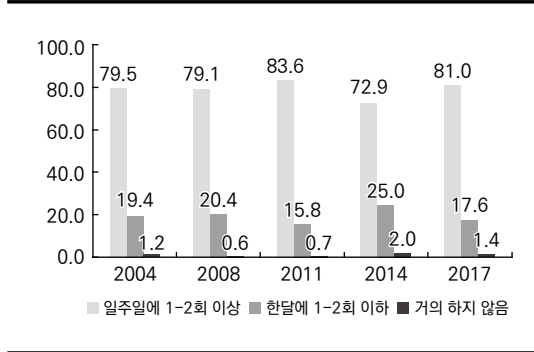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결속력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 동거 형태 및 교류 빈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동거 여부를 보면 2004년 자녀와의 동거 38.6%, 비동거 61.4%로 비동거가 동거보다 22.8%포인트 높았다. 최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고 비동거는 증가하여 2017년에는 자녀와의 동거가 23.7%, 비동거가 76.3%로 비동거가 동거보다 3.2배 많았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보호 환경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교류 빈도에서도 드러난다. 부모와의 연락 빈도에서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은 2004년 79.5%에서 2017년 81.0%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부모와의 만남은 동일한 빈도가 2004년 41.1%에서 2017년 38.0%로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비동거 거주 형태가 증가해 단순한 연락 빈도는 증가하였으나 만남을 통한 친밀한 교류 빈도가 적어져 가족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에 비해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비동거 거주 형태와 낮은 결속력은 가족 보호 체계의 약화와 함께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부양 부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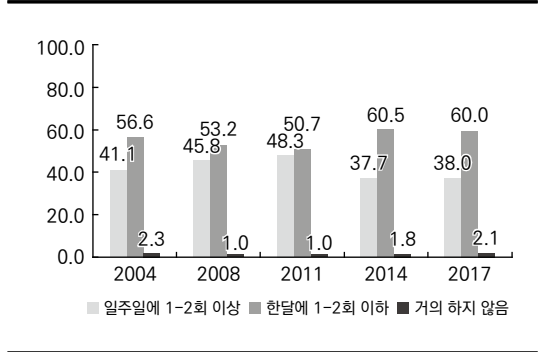
**그림 8.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연락 빈도 변화 (2004~2017년)**

(단위: %)



**그림 9.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만남 빈도 변화 (2004~2017년)**

(단위: %)



자료: 1) 정경희, 조애지, 오영희, 변용찬, 변재관, 문현상.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4.  
 2)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2.  
 3)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김한근, 이신영, 조준행 외.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p. 138.  
 4)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9.  
 5)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1.  
 6)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오미애, 강은나, 김경래...홍승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8.

자료: 1) 정경희, 조애지, 오영희, 변용찬, 변재관, 문현상.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4.  
 2)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2.  
 3)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김한근, 이신영, 조준행 외.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p. 138.  
 4)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9.  
 5)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1.  
 6)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오미애, 강은나, 김경래...홍승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8.

#### 4. 이중부양 특성 및 정책 욕구<sup>6)</sup>

##### 가. 이중부양 수준 및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에 실시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완료된 중·장년 1000명 중에서 만 25세 이상의 미혼 성인 자녀가 있는 비율은 58.6%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그중에서 미혼 성인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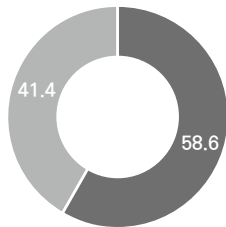
를 부양하는 비율은 53.7%로 과반수로 조사되었다. 부양하는 미혼 성인 자녀 수는 1명이 62.3%, 2명이 35.7%로 응답자의 98%가 2명 이하로 조사되었고, 전체 평균은 1.4명이었다. 또한 부양하는 미혼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72.4%로 3분의 2를 훨씬 상회하였다.

한편, 조사 완료된 중·장년 1000명 중에서 본인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살아 계신다는 응답은

6) 이중부양 특성 및 정책 욕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에 실시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림 10. 응답자의 미혼 성인 자녀 유무(201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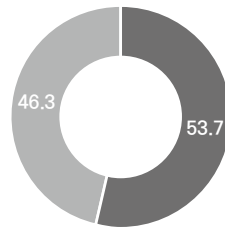


■ 미혼 성인 자녀 있음 ■ 미혼 성인 자녀 없음

자료: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pp. 149-150.

그림 11. 응답자의 미혼 성인 자녀 부양 여부(201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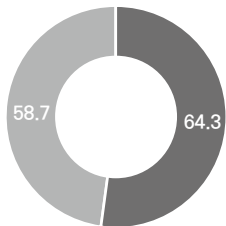


■ 부양하는 미혼 성인 자녀 있음 ■ 부양하는 미혼 성인 자녀 없음

자료: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pp. 149-150.

그림 12. 응답자의 부모 생존 여부(201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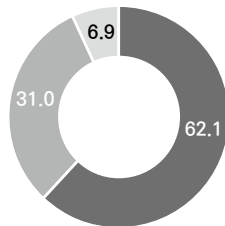


■ 본인 부모 살아계심 ■ 배우자 부모 살아계심

자료: 1)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p. 150.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 조사 자료.

그림 13. 응답자의 부모 부양 여부(2018년)

(단위: %)



■ 본인 부모 ■ 배우자 부모 ■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

자료: 1)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p. 150.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 조사 자료.

64.3%, 배우자 부모는 58.7%로, 본인 부모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중에서 주로 부양하는 부모로는 본인 부모가 62.1%로 절반을 훨씬 상회한데 비해 배우자 부모는 31.0%로 본인 부모 부양의 2분의 1 수준이었다.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

모 모두를 부양하는 경우는 6.9%에 불과하였다. 본인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14%, 배우자 부모는 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상당히 낮으며, 특히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더 낮게 조사되었다.

표 2. 중·장년층의 가족 특성별 부양집단 분포(2018년)

(단위: %)

구분	이중부양	단일부양	비부양
전체	39.5	37.8	22.7
가구 형태			
1인 가구	7.4	31.2	61.4
부부 가구	26.1	33.0	41.0
(한)부모+미혼 자녀	47.4	40.4	12.1
3세대 가구	51.9	34.2	13.8
기타 가구	35.2	42.8	22.0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16.9	37.5	45.6
200만~299만 원	33.8	39.6	26.6
300만~399만 원	38.8	33.3	27.9
400만~499만 원	39.6	42.2	18.1
500만~599만 원	48.0	38.4	13.7
600만~699만 원	42.8	45.2	12.1
700만~799만 원	50.4	35.3	14.4
800만 원 이상	56.1	30.5	13.4

주: 가구 형태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가 포함됨.

자료: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p. 135.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은 39.5%로 전체 응답자 중 5분의 2의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단일부양은 37.8%, 이들을 부양하지 않는 비부양은 22.7%로 조사되었다.

가구 형태별로 볼 때, 대체로 이중부양은 2세대와 3세대 가구에서 47~52%로 절반 내외 수준을 보인 데 비해 단일부양은 2세대와 기타 가구의 경우에 높았다. 비부양은 1인 가구의 경우 61.4%로 절반을 훨씬 상회하여 가구 유형별로 부양에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중부양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 데 비해 소득이 낮을수록 비부양 비율이 높았고, 단일부양은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소

득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중·장년층에 비해 노부모를 포함한 성인 자녀의 부양까지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성별로 보면, 이중부양 비율은 여성 중·장년층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데 비해 단일부양 비율은 남성이 높았다. 비부양 비율은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중부양 비율은 55~64세 연령층이 45~54보다 19%포인트 높은 데 비해 단일부양은 45~54세 연령층이 55~64세보다 16.6%포인트 높았다. 이는 가족 주기상의 이행에서 오는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혼인 상태별로 보면, 이중부양 비율은 유배우(동거)인 중·장년층이 사별·이혼·별거보다 14.1%포인트 높았고, 단일부양은 차이를 보

표 3. 중·장년층의 인구사회 특성별 부양집단 분포(2018년)

(단위: %)

구분	이중부양	단일부양	비부양
전체	39.5	37.8	22.7
성별			
남성	32.2	43.7	24.1
여성	46.0	32.6	21.4
연령			
45~54세	29.7	46.4	23.9
55~64세	48.7	29.8	21.5
혼인 상태			
유배우(동거)	42.5	38.2	19.3
사별·이혼·별거	28.4	30.5	41.1

주: 매년 전체 중·장년층 인구(45-64세) 대비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45-64세)의 백분율임.  
 자료: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p. 137.

이지 않았으며, 비부양은 사별·이혼·별거인 중·장년층이 유배우(동거)보다 2배 높은 분포를 보였다.

#### 나. 이중부양 유형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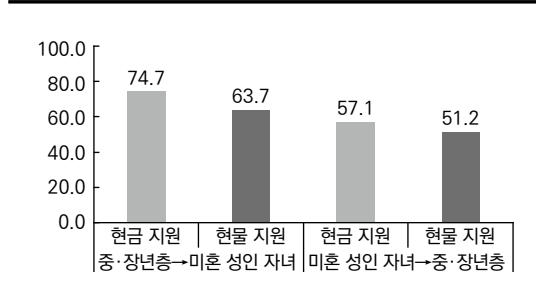
이중부양 유형에는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및 신체적 부양 등이 포함된다. 먼저,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경제적으로 지원한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금 지원은 74.7%, 현물 지원은 63.7%로 현금 지원이 11%포인트 높다. 이에 비해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지난 1년간 지원 받은 분포를 보면 현금 지원은 57.1%, 현물 지원은 51.2%로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 자녀보다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모두에서 비율이 높았다. 부양 정도는 현금 지원이 17.6%포인트, 현물 지원이 12.5%포인트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수준은 현금 지원의 경우 91.6%, 현물 지원은 71.2%로 현금 지원이 20.4%포인트 더 높았다. 이에 비해 노부모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비율은 현금 지원이 25.5%, 현물 지원은 23.9%로 현금 지원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비율에 비해서는 낮았다.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은 미혼 성인 자녀보다 노부모에게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을 하는 비율이 높았고, 피부양자 중에서는 미혼 성인 자녀가 노부모보다 중·장년층에게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금 지원은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 자녀 간에 약 18%포인트,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에 약 6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현물 지원은 각각 약 13%포인트, 약 47%포인트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 자녀 및 노부모 간의 현금 지원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피부양자

그림 14.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 자녀의 경제적 부양 유형(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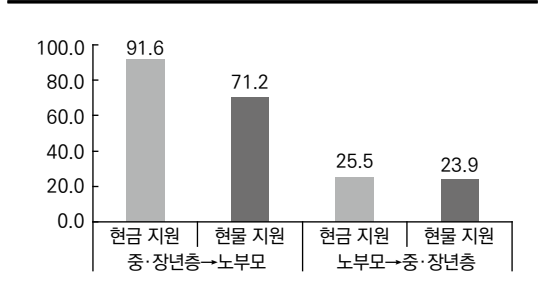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p. 156.

그림 15.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 유형(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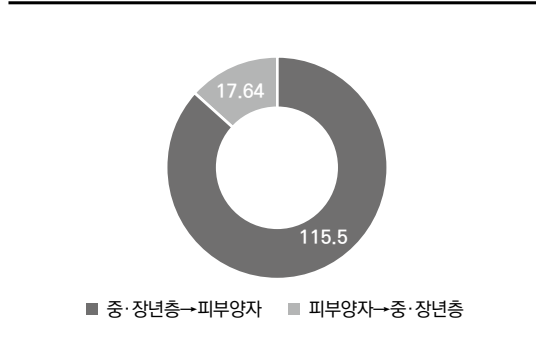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p. 156.

그림 16.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의 현금 지원 규모(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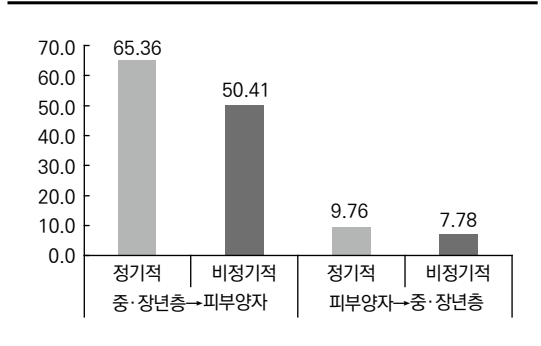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p. 161.

그림 17.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의 현금 지원 빈도 비교(2018년)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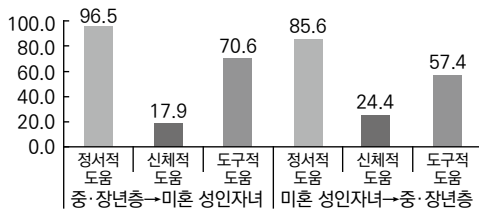
자료: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p. 161.

에게 지원한 현금은 월평균 115만 5000원인 데 비해 피부양자가 중·장년에게 지원한 현금의 월평균 17만 6400원으로 중·장년층이 피부양자에게 월평균 97만 8600원을 더 많이 지원하여 6.6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중·장년층은 피부양자에게 정기적으로 월평균 65만 3600원, 비정기적으

로는 50만 4100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비해 피부양자는 중·장년층에게 정기적으로 월평균 9만 7600원, 비정기적으로 월평균 7만 7800원을 지원하였다. 중·장년층은 피부양자에 비해 정기적으로 55만 6000원, 비정기적으로 42만 6300원을 더 많이 지원하여 각각 6.7배와 6.5배의 차이

그림 18.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 자녀 간 비경제적 부양 비교(201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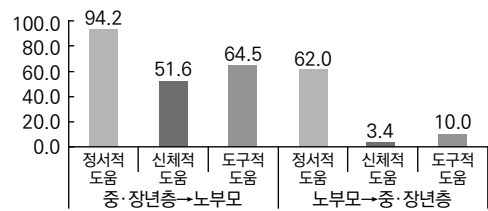
자료: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 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p. 172.

가 나타났다. 월평균 부양 비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7.7%로 5분의 1에 근접하여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다음으로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 자녀,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 비경제적 이중부양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 자녀에게 지원한 정서적 부양은 96.5%로 대다수에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도구적 부양은 70.6%로 3분의 2를 상회하였다. 신체적 부양은 17.9%로 5분 1에도 못 미치는 등 신체 부양 비율은 정서 및 도구 부양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이에 비해 미혼 성인 자녀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정서적 부양은 8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구적 부양 57.4%, 신체적 부양 24.4% 순이었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정서적 부양은 약 94%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도구적 부양 약 65%, 신체적 부양 약 52% 순이

그림 19.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 비경제적 부양 비교(2018년)

(단위: %)



자료: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 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p.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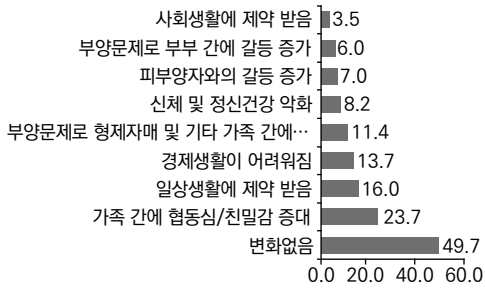
었다. 이에 비해 노부모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정서적 부양은 62%로 상당히 높았고, 그다음으로 도구적 부양 10%, 신체적 부양 3.4%로 정서적 부양 이외의 지원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은 노부모보다 미혼 성인 자녀에게 정서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을 지원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에 비해 신체적 부양은 미혼 성인 자녀보다 노부모에 대한 지원 비율이 3배 높았다. 피부양자 중에서는 미혼 성인 자녀가 노부모보다 중·장년층에게 비경제적 부양을 지원하는 비율이 모두 높았다. 특히 신체적 부양은 다른 비경제적 부양과 달리 미혼 성인 자녀가 중·장년층보다 지원 비율이 6.5%포인트 높았다.

#### 다.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욕구

지금까지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분포 및 이중부양 유형별 수준을 살펴보았다. 중·장년층 가구

**그림 20. 이중부양 전후의 가족생활 변화 분포 (2018년)**

(단위: %)



자료: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 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pp. 205, 227.

의 이중부양 부담은 중·장년층 가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중부양 전후 가족생활에 변화가 있다는 비율이 50.3%,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49.7%로 변화가 있는 중·장년층이 절반으로 나타났다. 이중부양 부담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변화를 보면, 이중부양으로 인한 부양자 간 갈등,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 갈등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부양자의 일상 및 사회생활 제약, 경제 및 건강 악화 등에 집중되었다.

한편,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를 조사한 결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마련’ 응답이 31.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보조금 지원(21.5%)과 세금공제 등 가계 보전(20.9%)도 높은 편이었다. 이외에 거주비 지원 가족돌봄휴직제도 및 청원휴직제도, 사회적 관심 강화, 상담 및 정서 서비스 지원, 지역

**그림 21.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정책 욕구 (2018년)**

(단위: %)



자료: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 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pp. 205, 227.

사회 간 소통과 연대 강화, 네트워크 및 유대 관계 강화 등도 정책 욕구가 나타났다.

## 5. 나가며

우리 사회는 급속한 소가족화·핵가족화, 가족 해체,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가족 돌봄을 담당할 주체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인구 확대와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성인기 자녀의 독립 지체는 돌봄 수요의 증가를 야기한다. 중·장년층은 본인의 노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다. 특히 고용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중·장년층은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은 가족 갈등을 초래하고 경제적 취약으로 인해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사회

적 지원 체계는 미흡하고, 중·장년층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균형 있는 이중부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이중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원 유지·담보를 위해 고용 안정과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일상생활 제약 외에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층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노부모와 성인 자녀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분포는 이중부양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 계층에서 주로 이중부양을 담당하고, 소득이 낮은 중·장년층은 이중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높게 경험하거나 노부모나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을 충분히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곧 다가올 정년과 은퇴로 인한 불안감은 중·장년층이 극심한 부양 스트레스와 스스로의 노후에 대한 위기감을 인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원 보전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중·장년층이 노년기에 진입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므로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서구와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노후 빈곤 확산과 가족의 경제적 부양 부담 증가, 건강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정년 제도를 개혁하여 은퇴 연령을 상향함으로써 소득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추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중·장년층이 고용 불안에 휩싸이고 경제적 부양 스트레스와 갈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퇴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 증가하게 될 기업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직을 포함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고용 보험을 통한 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창업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된다.

다른 하나는 이중부양의 지속과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해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내실화가 요구된다.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은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의 이중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본인의 노후 준비는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시기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된 고용 환경은 향후 노후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중·장년층의 이중부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통한 자원 보전은 이중부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노후 지원 준비 서비스



스의 내실화와 인프라 확대가 요구된다(이소정, 2016). 특히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 확대가 중요하므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노후준비지원법」 시행(2015. 12.)에 따라 개인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진단·상담·교육·연계·사후 관리 등의 프로그램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년층의 경제적 수준 및 필요 욕구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의 균형적인 부양 환경 조성을 위해 이증부양 보상 체계 마련 및 이증부양자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핵가족화·소가족화로 인해 가족 내 이증부양을 분담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인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증부양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증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 세대의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한 균형적인 부양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증부양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년층 세대의 이증부양자가 혼자 돌봄을 수행하기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이증부양자의 부양 부담감 감소와 함께 일과 가족생활 양립 및 빈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노부모 대상의 재가급여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노부모 및 이증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의 욕구가 해결될 수 있는 통합적 돌봄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장년층 이증부양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부양자의 돌봄 기술과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 유지 등 자기 관리 교육을 지역사회 내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가족 돌봄자 지원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거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가족 휴가제와 같은 휴식 지원 제도를 확대해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증부양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년층 중에서 이증부양자들은 부양 부담으로 가족 내 갈등 증가와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만성피로,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등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 이 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중·장년층의 이증부양 부담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부양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제약에서부터 경제생활의 빈곤화,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 가족과 피부양자 간의 갈등이 주를 이룬다. 이는 이증부양 부담이 강화되면 종국에는 부양가족의 정신건강이 상당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중·장년층의 이증부양 부담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해소하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증부양 가족 단위의 교육 및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

한 의사소통 가족 프로그램,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등 전문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재호. (2011).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노동리뷰, 61-75.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건우. (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건우.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종서, 손창균, 최영준, ...윤아름.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 (2017). 중장년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족 건강성 및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2(3), 471-492.
-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김한곤, 이신영, 조준행 외.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소용, 김명자. (1998). 며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81-107.
- 양영자. (2009). 농촌노인부부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 60(1), 127-152.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 이남순. (2006). 현대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케어복지학, 2(3), 172-193.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 (2016).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9, 70-82.
- 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용찬, 변재관, 문현상.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오미애, 강은나,

- 김경래,...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8.
- 정창수. (2009).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6.
- 진주영, 하규수. (2016).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2), 45-57.
- 통계청. (2000a). 인구 및 주택센서스.
- 통계청. (2000b, 2010b, 2012, 2015b, 2018a).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2000c, 2009, 2014). 사회조사.
- 통계청. (2002~2018). 사회조사.
- 통계청. (2005a, 2010a, 2015a).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00d, 2005c, 2010c, 2015c, 2017b, 2018c).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17). 2016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18b). 장래인구추계.
- Erikson, E. H. (1974). Dimensions of a New Identity. Jefferson Lectures in the Humanitie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Wakasaki, A., Matsumoto, K., & Kakehashi, C. (2006). A Study on Successful Ageing of Middle and Advanced Aged People - with Major Focus on the Current Status of Women in their Major Stage Living in Three Districts in Japan. *Kawasaki Journal of Medical Welfare*, 12(1), 45-53.